

# 성보 관리 전산화

## 조계종 실태조사 착수...도록 발간도

그동안 방치돼 있던 성보문화재의 현황이 세밀히 파악, 전산화 된다.

조계종 문화사회(부장 시현스님)는 성보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효율적 보존 관리를 위해 3년에 걸쳐 성보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올해 우선 해안사·월정사의 성보문화재 조사에 착수한다.

동국대박물관(관장 홍운식)과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법하스님) 등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전국을 지역별로 나누어 각 곳에 산재해 있는

지금까지의 성보문화재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며 사찰별 현장조사를 통해 성보문화재 전체를 파악해 놓는다는 것.

명칭 소장처 소재지 조성년 대 조성자 재질 구조특징 유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카드화하고 정밀 사진촬영과 함께 조사된 자료는 분류 정리돼 전산화한다.

이번 성보실태조사 대상은 조계종에 등록된 본·말사 전체의 지정·비지정 문화재와 함께 최근 봉안된 현대작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문화사회부는 조사를 마치고 동시에 조사보고서를 발간하며 성보도록 발간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성보문화재 실태조사는 8개 본사 성보조사단이 올해 건립시공됨에 따라 건립추진에 따른 봉안 유물 분류와 함께 성보관리 체계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시키고 지금까지 방치돼온 성보문화재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된다는 점에서 교계의 중요사업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경숙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한삼범)는 구립 27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동미빌딩 601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성타(조계종 포교원장)스님을 비롯 이종구(전 국보장관), 안동일(현호사)씨등 신도회 창립준비위 관계자 30여명이 동참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 저소득 모자가정에 자비 손길

#### 마·창 불교연 6년째 월등비 전달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지안스님)는 구립 26일 경남 건축사 회관관에서 '제6회 저소득 모자가정 위안법회'를 개최했다.

마·창지역 각 사암 주지스님과 각급 불교 지도자, 신도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는 분다라카 합창단의 음성공양, 유성 유치원생들의 재롱잔치, 정양자 무용단의 축무들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서 마·창불교연합회는 경남 도청에서 추천한 영세 모자세대 50가구에 월등주부식비 30만원씩과 생활용품 등을 전달했다.

### 문화재 209점 복원

#### 전남도 5개년계획 발표

전남도는 올해부터 2000년까지 5년간 7백14억3천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재를 보수·복원하는 '문화재보존중기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7백16점의 각종 문화재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 61점과 도지정문화재 1백48점의 보수·정비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미화원 포상

#### 선교종, 54명 30만원씩

대한불교 선교종(총무원장 혜종)은 구립 28일 부산일보

정상을 찾아가는 소책자 마을이 또다시 화오리 바람에 휘말릴 조짐이다.

지난해 불교계와 사회복지계에 물의를 일으켜 복역중인 정승우씨(일명 일력)가 중앙승가대에 기증한 소책자 마을에 대한 기부물 취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이같은 사실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외화도피)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구립 14일 열린 변호인 증인 채택 심리에서도 증인들이 정씨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씨측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또한 정씨가 중국

### 의식전문기구 설치 논의

#### 통일법요집 편찬위 편집세미나

조계종 포교원 통일법요집편찬위(위원장 성타스님) 결성 기념 불교의식 토론회가 구립 27일 '한국불교의식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불교종단협의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3월 통일법요집 편찬사업 기획으로

### 소책자 마을 또 '일력 악몽'

#### 의 하나였던 복지법인 설립이

의 하나였던 복지법인 설립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부취하소송 제기 이유로 들고 있다.

중앙승가대에 기증된 이후 3개월여간 소책자 마을은 승가대 보각스님을 완강으로 맞아 기존 전막집을 열어 조립식 주

### 해남기는 고속철 경주노선

####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주시민을 상대로 펼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체부안(건천우회노선)에 대한 선호가 건교부안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문화재보호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다. 건교부노선 주위에는 남산, 망산,

### 해남기는 고속철 경주노선

####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주시민을 상대로 펼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체부안(건천우회노선)에 대한 선호가 건교부안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문화재보호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다. 건교부노선 주위에는 남산, 망산,

### 해남기는 고속철 경주노선

####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주시민을 상대로 펼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체부안(건천우회노선)에 대한 선호가 건교부안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문화재보호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다. 건교부노선 주위에는 남산, 망산,

### 해남기는 고속철 경주노선

####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주시민을 상대로 펼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체부안(건천우회노선)에 대한 선호가 건교부안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문화재보호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다. 건교부노선 주위에는 남산, 망산,

### 해남기는 고속철 경주노선

####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주시민을 상대로 펼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체부안(건천우회노선)에 대한 선호가 건교부안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문화재보호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다. 건교부노선 주위에는 남산, 망산,

### 해남기는 고속철 경주노선

####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주시민을 상대로 펼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체부안(건천우회노선)에 대한 선호가 건교부안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문화재보호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다. 건교부노선 주위에는 남산, 망산,

### 해남기는 고속철 경주노선

####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주시민을 상대로 펼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체부안(건천우회노선)에 대한 선호가 건교부안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문화재보호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다. 건교부노선 주위에는 남산, 망산,

### 해남기는 고속철 경주노선

####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주시민을 상대로 펼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체부안(건천우회노선)에 대한 선호가 건교부안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문화재보호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다. 건교부노선 주위에는 남산, 망산,

### 해남기는 고속철 경주노선

####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주시민을 상대로 펼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체부안(건천우회노선)에 대한 선호가 건교부안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문화재보호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다. 건교부노선 주위에는 남산, 망산,

### 해남기는 고속철 경주노선

####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주시민을 상대로 펼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체부안(건천우회노선)에 대한 선호가 건교부안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문화재보호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다. 건교부노선 주위에는 남산, 망산,

### 해남기는 고속철 경주노선

####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주시민을 상대로 펼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체부안(건천우회노선)에 대한 선호가 건교부안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문화재보호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다. 건교부노선 주위에는 남산, 망산,

### 해남기는 고속철 경주노선

####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주시민을 상대로 펼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체부안(건천우회노선)에 대한 선호가 건교부안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문화재보호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다. 건교부노선 주위에는 남산, 망산,

### 해남기는 고속철 경주노선

####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주시민을 상대로 펼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체부안(건천우회노선)에 대한 선호가 건교부안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문화재보호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다. 건교부노선 주위에는 남산, 망산,

### 해남기는 고속철 경주노선

####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주시민을 상대로 펼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체부안(건천우회노선)에 대한 선호가 건교부안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문화재보호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다. 건교부노선 주위에는 남산, 망산,

### 해남기는 고속철 경주노선

####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주시민을 상대로 펼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체부안(건천우회노선)에 대한 선호가 건교부안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문화재보호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다. 건교부노선 주위에는 남산, 망산,

### 해남기는 고속철 경주노선

####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주시민을 상대로 펼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체부안(건천우회노선)에 대한 선호가 건교부안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문화재보호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다. 건교부노선 주위에는 남산, 망산,

### 해남기는 고속철 경주노선

####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주시민을 상대로 펼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체부안(건천우회노선)에 대한 선호가 건교부안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문화재보호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다. 건교부노선 주위에는 남산, 망산,

### 해남기는 고속철 경주노선

####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주시민을 상대로 펼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체부안(건천우회노선)에 대한 선호가 건교부안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문화재보호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다. 건교부노선 주위에는 남산, 망산,

### 해남기는 고속철 경주노선

####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주시민을 상대로 펼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체부안(건천우회노선)에 대한 선호가 건교부안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문화재보호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다. 건교부노선 주위에는 남산, 망산,

### 해남기는 고속철 경주노선

####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주시민을 상대로 펼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체부안(건천우회노선)에 대한 선호가 건교부안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문화재보호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다. 건교부노선 주위에는 남산, 망산,

### 해남기는 고속철 경주노선

####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

주말전정전연구소가, 각자 경주시민을 상대로 펼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문체부안(건천우회노선)에 대한 선호가 건교부안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문화재보호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다. 건교부노선 주위에는 남산, 망산,

## 여성 질병의 원인과 항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뱃속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 받는 것처럼 신혈(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리오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오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항요법 항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품문의: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02) 755-9821

## 봉원사 제35대 주지 김대운 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주지	김대운	총재	박송암
부주지	강환월	회장	김대운
총무	박고산	총무	마일운
교무	이기봉	교무	최원허
재무	마일운	사회	김능화
사무장	이운봉	재무	이운봉

대중일동      회원일동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산 1번지  
☎ (02) 392-3007~8 / 팩스 : 393-9450